

예수 하나님의 공의

Geoff Bullock

올네이션스 악

D A/C# Bm D/A G D/F#

1. 예 - 수 - 하 나 님 의 공 의
2. 예 - 수 - 하 나 님 의 사 략

주독생 각 그 으나 라
주 은혜 와 말씀 으로

E⁷ G/A A Bm D/A G D/F# E⁷

oh 하니 - 네 - 예 - 수 - 제 물이 되신 주 -
나 터었 - 네 - 예 - 수 - 거룩한 하나님 -

D/F# G E⁷ A G/A F⁷/A E⁷/A

여 광증 예 그 으나 라 oh 하니 - 네 -

D A/C# Bm F⁷/A

주와 나와 예 주님 - - 그와 예 광주 무 주하리 - -

A/G D/F# E/G# A⁷ A/Bm

왕의 외 영과 - 능력 - 이 - 이자 예 영하였 - 오라 -

A/C# D A/C# Bm F⁷/A G

주의 주권과 - 주의 통치와 - 주의 나라와 - 과거의 역사와 함께 -

D/F# G D/A Bm E⁷ A⁷ A G/D D

예 - 수 하 나 님 의 - 공 의 -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Rick Founds

올네이션스 악

G C² D⁷ C C/D G C² | 1. D⁷ C

주의 이름 높 - 이며
나를 구하려 - 오신

D⁷ sus D C/D D G C D⁷ sus C G

oi - 라
하늘영광 버리고 - oi 짹 예에 -

C D⁷ sus C G A⁷ D

십자가 - 를 지나고 - 꺼사 했는데 - 무덤에 - 서 있음에 -

E⁷ A⁷ D C/D G C/G G

하늘로 - 올라서셨네 - 주의 이름 높 - 이 - 라 - -

Copyright © 1999 Maranatha! Praise In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

시편 81, 82편

<p>1 우리의 힘이신 하느님께 즐거운 노래를 불러 드려라. ○ 야곱의 하느님께 환성을 올리어라.</p> <p>2 풍악을 울리고 소고를 쳐라. 거문고를 울리며, ○ 수금으로 아름다운 가락을 뜯어라.</p> <p>3 초하룻날이다, 나팔을 불어라. ○ 대보름날이다, 나팔을 불어라.</p> <p>4 이는 이스라엘이 지킬 규정이요 ○ 야곱의 하느님께서 주신 법이다.</p> <p>5 이집트에서 나오실 때 ○ 요셉 가문에 내리신 훈령이다.</p> <p>6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던 소리를 들었으니, ○ “내가 너희 등에서 짐을 벗겨 주었고 광주리를 내던지게 하였다.</p> <p>7 너희가 곤경에 빠져 부르짖을 때 살려 주었고: 폭풍 속에 숨어 너희에게 대답하였으며 ○ 므리바 샘터에서 너희를 떠보기도 하였도다.”</p> <p>8 “백성들아, 내가 타이르는 말을 들어라. ○ 이스라엘아, 정녕 나의 말을 들어라.</p> <p>9 너희는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 이교도의 신을 예배하지 말지니라.</p> <p>10 너희 하느님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나 야훼 하느님이다. ○ 다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 주리라.”</p> <p>11 “그러나 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 이스라엘은 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다.</p> <p>12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마음을 굳은 대로 벼려 두어 ○ 저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였다.”</p> <p>13 “내 백성들아,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 이스라엘아, 나의 뜻을 따라 걸어다오.</p>	<p>14 그리하면 당장 너희 원수들을 쳐부수리라. ○ 나 당장 너희 압제자들에게 손을 대리라.</p> <p>15 주님의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아첨하게 될 것이니 ○ 그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으리라.</p> <p>16 그러나 내 백성은 기름진 밀가루로 먹이고 ○ 바위에서 따낸 꿀로 배불리리라.”</p> <p>●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느님께서 군왕들을 모으시고 ○ 그 가운데 서시어 재판하신다. 2. “언제까지 너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하려는가? ○ 언제까지 악인에게 편들려는가? 3. 약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 주고 ○ 없는 이와 구차한 이들의 권리를 찾아 주며, 4.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풀어 주어라. ○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5. “그러나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깨닫지도 못하여 ○ 어둠 속을 해매고만 있으니 세상은 뿌리째 흔들린다. 6. 나의 선고를 들어라. 너희가 비록 신이라 말하고 ○ 지금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칭하고 있지만, 7. 너희는 보통 인간처럼 죽겠고 ○ 여느 군주처럼 넘어지리라.” 8. 하느님이여, 일어나시어 온 세상을 재판하소서. ○ 만백성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p>●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p>
---	---

복음서: 루가(누가)복음 20:27-40

<p>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p>	<p>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 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을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p> <p>○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p> <p>● 하느님께 감사합니다.</p>
--	---